

광주시, “전환기 장년 ‘50+종합채움’으로 챙긴다”

**생활밀착형 장년정책 34개 사업에 32억 투입...신규 9개 추진
 사업량 확대·인건비 상향 등 경제 안정에 역점...사회참여 강화
 뉴노멀시대 위기 적응 위한 디지털 역량 등 생애전환교육 운영**

광주시(시장 강기정)가 생애 전환기 장년들의 인생 2막을 ‘50+종합채움’으로 챙긴다. 시는 2023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인 ‘50+종합채움’을 마련, 다양한 생활밀착형 장년정책을 추진한다. ‘50+종합채움’은 총 사업비 32억 원을 투입해 ▲경제·사회활동 강화를 위한 일자리 확대 ▲전담기관 기

능강화를 위한 ‘빛고을50+센터’ 지원체계 확대 ▲디지털 역량 강화 및 미래사회 적응력 향상 지원 교육 강화 ▲활력있는 장년정책 지원 인프라 지속 확충 등 4개 분야, 34개 사업을 펼친다. 특히, 올해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년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 분야에 역점을 뒀다. 빛

고을 50+일자리 사업량 확대, 인건비 단가 상향 조정 등 장년층의 경제적 안정 및 사회참여 기회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생애재설계 전담기관인 ‘빛고을50+센터’가 직접 빛고을 50+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며, 2개 분소를 운영하고 이용자 수요 증가에 따른 공간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육구 진단·컨설팅·교육·일·정보 연

계 활동 등 수요자별로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강화하고, 정책 수요조사도 실시한다. 광주시는 중장년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이 50대 이후 급격히 하락하는 특성을 반영해 디지털 역량 및 미래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디지털교육’, ‘생활밀착형 디지털 체험존 운영’, ‘100세 시대 트렌드(메타버스, 5차 산업혁명 등) 특강’ 등 생애 전환 교육과 맞춤형 법률상담, 치매 조기검진, 사회서비스 종사자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 9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중앙부처, 국민연금공단 광

주지역본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 24개 유관기관과 5개 자치구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단순 정보 제공뿐 아니라 제공기관과 직접 연계하는 등 장년정책 서비스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50+포털 개통 등 온·오프라인 종합플랫폼 구축을 완성, 1만3천여 건의 일·여가·교육 등의 각종 서비스 지원하고 있다. ‘50+지원 정책 비전 포럼’ 개최 등 장년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다양한 정책들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

고 있다. 류미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은퇴후 50년, 무엇을 더하고(+), 잃은지’에 대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광주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전담기관인 ‘빛고을50+센터’를 슬기롭게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며 많은 중장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권했다. ‘빛고을50+센터’는 동구 학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서비스 ‘빛고을50플러스’(<https://www.gj50plus.or.kr>) 홈페이지나 전화(062-228-5050)로 문의하면 된다. /유규진기자

현대차 아이오닉 5, 독일 유력 車 전문지 전기차 비교평가서 1위 올라



현대차의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가 유럽 유력 자동차 전문지 비교평가에서 스코다 엔야크 RS, 벤츠 EQB, MG 마블 R을 앞서는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독일 자동차 전문 매체 ‘아우토 빌트’는 ‘넓고 쾌적한 실내공간과 효율적인 급속 충전 시스템을 갖춘 차’라고 평하며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현대차 제공

현대자동차의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가 유럽의 유력 자동차 전문지 비교평가에서 스코다 엔야크 RS, 벤츠 EQB, MG 마블 R을 앞서는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독일 자동차 전문 매체 ‘아우토 빌트(Auto Bild)’는 최근 실시한 전기차 모델의 비교 평가에서 아이오닉 5가 넓고 쾌적한 실내공간과 효율적인 급속 충전 시스템을 갖춘 차

라고 평하며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아우토 빌트는 아우토 모토 운트 슈포르트(Auto Motor und Sport), 아우토 자이퉁(Auto Zeitung)과 함께

신뢰성 높은 독일 3대 자동차 매거진 중 하나로, 독일은 물론 유럽 전역의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매체다. 이번 비교평가는 ▲바디 ▲편의성 ▲파워트레인 ▲주행성능 ▲커넥티비티 ▲친환경성 ▲경제성 등 7가지 평가 항목에 걸쳐 진행됐다. 아이오닉 5는 평가항목 중 ▲바디 ▲파워트레인 ▲친환경성 등 3개 항목에서 1위를 차지하며 종합점수 570점으로 568점을 받은 스코다 엔야크 RS를 제치고 최고점을 획득했다. 이는 아이오닉 5가 아우토 빌트가 준중형부문 ‘2022 최고의 수입차’로 선정한 스코다 엔야크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함께 3.4위를 차지한 벤츠 EQB와 MG 마블 R과는 각각 19점, 40점이라는 큰 점수차로 앞서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아이오닉 5는 실내공간, 다용도

성, 전방위시계 등을 평가하는 바디 항목에서 비교 차량 대비 가장 높은 점수(96점)를 받았으며, 전기차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는 파워트레인 항목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인 95점을 받아 상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환경기술, 소음 등을 평가하는 친환경성 항목에서도 스코다 엔야크 RS와 최상위 점수(72점)를 기록했다. 아이오닉 5는 현대자동차그룹의 E-GMP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된 최초의 전용 전기차로 ▲독창적이고 미래적인 디자인 ▲다목적성을 위해 혁신적으로 설계된 실내 공간 ▲환경 친화적인 소재와 컬러 ▲전용 전기차만의 역동적인 주행 성능과 충돌 안전성 ▲편리하고 효율적인 급속 충전 시스템 ▲무빙 에너지 시스템 개념의 V2L(Vehicle To Load)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및 최첨단 인포테인먼트 사양 등을 적용해 최상의 상품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높은 상품 경쟁력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아이오닉 5는 글로벌 수상과 호평 세례를 이어오고 있다. 아이오닉 5는 지난해 12월 한국 자동차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 올해의 수입차’에 이름을 올리고 지난 4월 ‘2022 월드카 어워드’에서 ‘세계 올해의 자동차’를 수상한 데 이어 지난 10월 세계적인 권위의 자동차 전문지 모터트렌드의 ‘올해의 SUV’에 EV 최초로 선정됐다. 이 밖에도 ‘2022 독일 올해의 차’, ‘2022 영국 올해의 차’에 이름을 올렸으며 워즈오토(WardsAuto)가 선정하는 ‘2022 워즈오토 10대 엔진 및 동력 시스템(Wards 10 Best Engines & Propulsion Systems)’, 카앤드라이버 ‘2022 올해의 전기차’, ‘아우토 모토 운트 슈포르트 전기차 비교 평가 종합 1위’, ‘아우토 빌트 최고의 수입차 전기차 부문 1위’, ‘아우토 자이퉁 전기차 비교 평가 종합 1위’를 차지하는 등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문수기자

황토갯벌에서 자라는 농산물

양파, 낙지, 고구마, 송어 등 자연의 보고... 황토로 무안

무안군